

한학기 간의 교환 생활을 돌아보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현민

저는 한국 예술 종합 학교 무용 이론과, 전현민입니다. 먼저 한국 예술 종합 학교 무용이론과와 오차노미즈 예술 표현 행동학과, 무용 전공의 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오차노미즈에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오차노미즈에 오게 된 것은 특수 과인 무용이론과와 타 대학과는 전공 과목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차노미즈는 무용이론과와의 전공 유사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오차노미즈에서는 한예종과 같이 무용 실기 뿐 아니라 다양한 이론 수업도 제공하고 있고, 실기 수업에서도 이론 비중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모던 댄스 수업에서도 해부학에 대해 간단하게 배우고, 스스로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기 시험을 보거나 ALH 시간에는 셀프리포트를 쓰게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 캡처하여 스스로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감상, 고쳐야 할 점, 의도대로 실현된 움직임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실기 수업에서 실기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이를 글과 사진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별로 하지 않는지라 과제를 할 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돌이켜 보면 그 과정이 저를 더 발전시켰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의 수업 중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는 유학생 특설 일본어 수업 중 하기와라 선생님의 일본어 연습 2A 수업이었습니다. 일본어 연습 2A에서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피드백과 조언을 얻으며 색다른 방식으로 일본어를

연습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일본어가 아직 서툰데다 웹사이트를 만들어본 경험도 없었기에 걱정도 되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 점차 완성되어 가는 웹사이트를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정규 수업 외에도 지도교수님인 나카무라 선생님 덕분에 일본 무용 수업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무용 수업에서는 기모노를 입는 법부터, 일본 무용에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짧은 일본 무용 작품까지 배울 수 있어 일본 현지가 아니면 하기 힘든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한학기 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도 교수님인 나카무라 선생님, 항상 신경 써주시고 공연이나, 수업 등 여러가지 기회를 제공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모던댄스를 한학기 동안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후쿠모토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 유학생 홈룸 수업부터 일본어 연습 1A, 2A 수업을 맡아 늘 유익한 강의를 해주시는 하기와라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선생님들, 일본어 작문 수업의 한 선생님, 문법 수업의 차난턴 선생님, 가르마에바 선생님, 회화 수업의 아야 선생님, 일본 사정 연습 1A의 데렉 선생님까지 모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